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허 경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손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확대가계 및 핵가족 가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귀영

조손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확대가계 및 핵가족 가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허 경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 귀 영

認 准 書

박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는 기존 가족구조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오면서 조부모와 손자녀 만으로 구성된 ‘조손가계(Grandparent-headed Households)’라는 새로운 가계유형을 출현시켰다. 조부모가 형성한 경제구조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손자녀들이 속해 있는 조손가계에 대한 경제구조분석을 통해 이들 가계가 처해 있는 경제적 현실을 알아보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계의 경제구조를 핵가계와 확대가계와의 비교를 통해 소득, 지출, 자산, 부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04년 가계조사 데이터(2004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aw data)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주와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계를 구분하여 샘플수가 적은 홀부조손가계를 제외한 총 7개의 집단(홀모조손가계, 양부모조손가계, 편부핵가계, 편모핵가계, 양부모핵가계, 편부확대가계, 편모확대가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데이터를 SPSS Window(Version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으며, 가계형태에 따른 경제구조와 재무안정성 차이검증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고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유형별 소득구조분석에 있어서 비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주 소득, 가계총근로소득, 가계총소득에서 조손가계가 핵가계와 확대가계에 비해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홀모조손가계의 취약한 소득구

조가 눈에 띄었다.

둘째, 가계유형별 금융자산과 부채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에서는 조손가계가 핵가계와 확대가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계별 월평균부채상환액수에서는 조손가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부채상환액을 가지는 핵가계와 확대가계와 비교했을 때 1/4 수준의 부채상환액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가계유형별 소비지출구조 분석에 있어서, 총소비에서 조손가계가 핵가계, 확대가계와 비교했을 때 금액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비목에 따른 비교를 살펴보면, 조손가계가 식료품, 광열수도,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비목에서는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으나, 가구집기사용품이나 가사서비스, 특히 교통통신 비목에서는 다른 가계유형보다 많은 지출액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교육이나 교양오락 비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순소득과 소득 중 부채상환 비중을 통해서 알아본 가계유형별 재정적 안정도 차이검증에서는 순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소득 중 부채상환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문제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4
II. 개념 정의	
1. 경제구조 개념 -----	5
1) 소득·지출 -----	5
2) 자산·부채 -----	6
2. 가계구분 -----	7
1) 조손가계 -----	7
2) 핵가계 -----	8
3) 확대가계 -----	8
III. 선행연구고찰	
1. 조손가계현황 -----	10
2. 조손가계의 경제구조 -----	13
IV.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8
2. 자료 및 조사대상 -----	18
3. 측정도구의 구성 -----	21
4. 자료분석방법 -----	22

V. 연구결과 및 분석	
1. 가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차이 -----	23
2. 조사대상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및 차이검증 -----	26
1) 가계유형별 소득구조 비교 및 차이검증 -----	26
2) 가계유형별 자산 및 부채구조 비교 및 차이검증 -----	35
3) 가계유형별 지출구조 비교 및 차이검증 -----	38
4) 가계유형별 재정적 안정도 비교 및 차이 검증 -----	49
VI.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	51
2. 제언 -----	54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1. 문제제기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겪어온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는 기존 가족구조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핵가족화로는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시켰는데 한부모가계, 계부모가계 등이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가정의 구조변화라는 측면에서 그 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에 반해 조손가계는 그 수와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조명되지 못한 가계형태 중 하나이다.

조손가계는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조부모와 그들의 손에서 양육되는 손자녀로 구성되는 가계를 지칭한다. 이들의 잠재적인 심각성은 이미 수면위로 드러나 있다. 조손가계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거나 사회적으로 탈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조손가계의 현실은 실로 참담한데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길러 준 조모를 살해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월세 9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외증조모와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손자녀도 있었다. 이들은 경제적인 궁핍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조손가계 구성원은 양육과 관심의 손길이 필요한 손자녀와 이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조부모로 이루어진다. 이들이 생활을 영위하

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비 이외에도 손자녀들의 학습에 필요한 교육비와 고령과 손자녀 양육으로 심신이 지친 조부모의 의료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조손가계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기에는 버거워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게 된다. 현재 조손가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조손가계를 위탁가정의 한 형태로 분류해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위탁아동 1인당 7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또 가족 수와 수입에 따라 생계비와 교육비가 지원되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손가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 그 이유는 대다수의 조손가계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류상에는 부모가 보호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부모가 생존해 있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손가계의 경제적 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현재 우리나라 조손가계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의하면 가구유형 중 5.1%인 기타 노인가구의 약 71%인 3.6%가 노인과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2005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세대구성별 가구원수 자료에 따르면 총 1587만 7128가구 가운데 조손가계는 0.37%인 5만 810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4만 5225가구에서 5년 새 1만2000여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 책임자가 되는 이유로는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을 들 수 있는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자녀들이 우리나라 특유의 친족정서와 결부되어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더욱이 평균수명의 연장은 손자녀들이 30년 이상을 조부모와 함께 생존 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환경을 가

능하게 하므로 조손가계의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손가계의 예상된 증가는 그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는데 주로 조손가계 내에서 조부모의 심리 및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손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신체적인 노화로 인하여 여력이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초점이 이루어졌고, 생애주기 상에 어긋나는 양육이라는 역할에 의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조부모들의 심리적인 상태 파악도 관심영역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저변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조손가계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실질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을 가지지 못 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들 가계를 대상으로 한 깊이 있는 경제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이미 노인가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노인가계의 가계소득과 지출은 비노인가계보다 낮았고 전통적인 생애주기가설에서 노인가계의 경제수준을 완충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계자산도 두 집단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양세정, 성영애, 2001)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손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사실로 여겨지나 손자녀의 존재가 노인가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조손가계의 조부모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나거나 월평균 100만 원 이하의 가계소득을 가지고 있어(이화영, 2006)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가계가 어떠한 가계경제구조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유형에 따른 가계경제구조 상의 차이를 밝혀 궁극적으로 조손가계가 가지는 경제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전통적인 확대가계, 현대사회의 대표적 가계 형태인 핵가족 가계와 조손가계를 비교함으로써 조손가계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 조손가계 내에서도 조모가계와 조부가계, 조부모 모두 생존해 있는 가계로 나누어 조부모의 성별이 경제구조 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적 원조가 필요한 조손가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과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개념 정의

1. 경제구조 개념

1) 소득·지출

가계의 경제구조는 주로 가계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자산상태를 고찰함으로써 파악된다. 가계소득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된다. 일정한 금액이 규칙적으로 지속되는 경상소득은 가계지출의 근간이 되는 소득이다. 비경상소득은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전혀 예상할 수 없거나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으로서 각종 상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다. 가계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상소득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상소득은 소득 원천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또한 소득 획득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가구주소득, 배우자 소득, 기타 가구원 소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소득은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며 특히 가구주 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가계소득 획득자 수에 따라 가계를 1인 취업가계, 2인 취업가계, 부부가 모두 취업한 맞벌이가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이기춘, 1991).

가계지출도 다양한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출이 가구원의 생활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직접 소비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 소비되는 소비지출과 조세, 이자 지출, 송금 등 가구원의 소비에 직접 소비되지 않는 비소비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이기춘, 1991).

2) 자산·부채

자산은 크게 금, 은,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된다(이기춘외, 1998). 금융자산은 가계가 금융기관을 통해 축적한 저금, 저축성 보험, 유가증권 등의 공금융자산과 계, 사적인 대부 등 금융자산을 통하지 않고 사적인 통로를 통해 축적하는 사금융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채는 여러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이연수, 양세정, 주인숙, 2000 ; 정순희 2003). 상환방식에 따라 할부상환대출, 일시상환대출, 한도대출로, 담보여부에 따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거래방식에 따라 건별거래대출, 한도거래대출, 할부금융대출로 구분되고 있다(정순희, 2003 ; 이연숙, 양세정, 주인숙, 2000)

2. 가계구분

1) 조손가계

조손가계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손가계의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이는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하는데 대한 대리 양육자로서의 법적 권한이 없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조손가계이라 함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일컫는데, 조손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 국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부모가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함께 동일한 거주 단위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Full-Thomson & Minkler, 2000; 김미혜, 김혜선, 2004에서 재인용) 손자녀의 일상생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합법적인 관계의 가족’으로 정의되고 있다 (Jendrek, 1994; 김미혜, 김혜선, 2004에서 재인용). 즉, 미성년자인 손자녀의 일상적 의식주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조부모들이 일정 거주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함께 거주한 가정을 통틀어 조손가계이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식적인 합의에 이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조손가족, 조부모-손자녀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가장세대, 조부모손자녀세대, 조부모와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으로 불리고 있다(김정은, 2002). 변화순(2005)은 조손세대라는 개념으로 조손가계를 설명하며 청소년들이 친척이나 조부모와 동거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연령이나 기타 이유로 경제적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조손가계의 정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

데 ‘자녀세대의 가족해체로 그들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들)와 한 가정에서 6개월 이상 동거하면서 손자녀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생활전반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으로의 개념 정의가 가능하다(이화영, 2006).

2) 핵가계

핵가계는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소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가족이 저마다 독자적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근친자(近親者)와 동거하여 확대가족(extended family)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부나 부모자식의 긴밀한 결합은 항상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모든 가족의 근저에 있는 집단적 구성단위라고도 생각된다. 핵가족이라는 용어는 종전까지의 부부가족이나 소가족보다 적절한 표현이라 하여 국제적으로도 널리 쓰이게 되었다. 독립한 핵가족의 존재는 반드시 근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근대산업사회에서의 개인주의, 사회적 이동성 및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일찍부터 유럽과 미국에서는 핵가족화의 경향이 촉진되었다. 한국에서도 1960년대 후반부터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이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3) 확대가계

부부 및 미혼 자녀 이외에 직계존속(尊屬)·비속(卑屬)과 방계의 친족 등을 포함한 가족의 개념으로 확장가족이라고도 한다. 제도상으로는 부모·자식 중심의 가족에 해당하는 가족형태상의 분류개념이다. 핵가족에 대비하여 사용한 ‘extended family’의 역어로, 대가족보다 개념이 명확하다.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기 힘든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혼한 가족형태이며, 한국에서도 근년에 이르러 핵가족으로의 분열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Ⅲ. 선행연구고찰

1. 조손가계 현황

우리나라 조손가계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0월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4만5,225가구 15만3,117명이던 조손가계가 2005년 5만8,101가구에 19만6,076명으로 28%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손가계 상당수가 아동 정서 등을 고려해 생활실태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조손가계은 20만 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한국일보 2007년 10월 9일자 기사 인용).

실제 2005년 당시 전라남도가 자체 조사한 조손가계는 5,003가구(최소 2만2,600여명)로, 통계청의 수치(4,711가구 1만6,105명)보다 많았다는 것이 이러한 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특히 2007년 통계청 전국 가계조사를 보면 조손가계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즉 아동 빈곤율이 48.5%에 달할 정도로 조손가계의 절대빈곤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생활고는 물론, 아동의 학력저하와 범죄노출 등 부작용이 크지만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조손가계 가운데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가정위탁부모로 지정될 경우에만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도다.

조손가계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경우 서류(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와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이나 생활보호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가 많다. 더구나 관계 당국은 조손가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 등 복지관련법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과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부는 2005년 통계청 수치를 3년째 조손가계 현황자료를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조손가계에 대한 연구가 국내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손가계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1980년 2.3만 명의 18세 미만 아동(3.6%)이 조부모가 세대주인 가구에서 자라고 있으며, 동 수치는 1990년 3.2만 명(5%), 1998년 4.3만 명(5.6%)으로 증가되어 지난 20년간 약 72%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다.

조손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시점에서 미국의 조손가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U.S. Census Bureau 자료에 의하면 1997년에 3백만 9천명의 손자녀(18세 이하의 손자녀 중 5.6%)가 조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가 동거하는 가구의 수가 1970년부터 1997년까지 약 76%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Bryson & Casper, 1999; 김효정, 2004에서 재인용).

1992년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자료를 분석한 AARP 연구에 의하면, 손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의 평균연령은 57세였고, 이들의 1/3정도가 결혼한 상태였다.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20,000 이하인 비율은 56%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26%와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높은 수치였다.

한편 손자녀 양육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40세에서 78세 사이의 조부모 4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56%가 가계재정상의 어려움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재정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의 결핍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1994년도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NSFH)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인 3,477명의 조부모 중 10.9%가 6개월 이상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56%는 적어도 3년 이상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 손자녀의 약 75%는 5세 이전부터 조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59.5세였으며, 77%가 조모였고 흑인의 경우 다른 인종에 비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이들의 연평균 가계소득은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부모의 연평균 가계소득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Fuller-Thomson, 1997).

2. 조손가계의 경제구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손가계의 경제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가계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선입견이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 하도록 했다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몇몇 연구에서 언급되는 조손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호소하는 생활변화의 어려움 중 경제적 형편의 악화가 건강상 문제 다음으로 번번이 지적되는 문제였다(옥경희, 2003).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여러 가지 사회 제반 서비스 제공 등의 욕구로도 이어져 손자녀 학습지원이나 가사지원 등의 사회적 혜택을 요구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저소득층 조손가계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주로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 부조 급여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적 지지망 의존형이었다(최해경, 2002)는 지적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곧 정부와 사회로의 손별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조손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1차적으로 경제적 능력 부족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이외에도 조부모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가져와 손자녀와의 원만한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거나 가정불화를 일으켜 손자녀가 탈선하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빚과 대출로 인한 가계부담과 의료경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높을수록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은, 1992)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조손가계가 왜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게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조명이 필요한데, 조손가계는 손자녀의 존재 이

전에 가정의 가구주가 노인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노인가계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 경기도 제 2청이 2006년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1183가구(손자녀 1876명)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조부모의 연령대는 60-70세가 49%, 71세 이상이 39.6%로 나타나 전체 88.6%가 60세를 넘긴 노인기의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계레신문, 2006년 8월 5일). 이것은 조손가계에 대한 경제구조분석 이전에 노인가계에 대한 경제구조분석에 대한 일차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조손가계 경제구조의 취약성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담당하는 조부모의 취업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노인계층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은퇴는 곧 근로소득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은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행상 자신이 축적해 놓았던 노후대비자산을 제외한 가장 큰 소득보조의 대상은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 연령대에 진입해 있는 자녀였다. 조손가계의 특성상 이러한 소득보조가 차단되었기에 더욱 빈곤함에 허덕인다는 의견도 있었다(김정은, 2002).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조손가계의 특성상 자식을 통한 소득보조의 부재와 손자녀의 양육에 관한 지출이 생성되기 때문에 조부모의 취업 상태가 가계경제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손자녀의 양육이라는 실질적인 제약이 존재하기에 조손가계의 노인들은 직업의 선택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손가계의 노인들의 취업이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계 경제의 악화를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었다. 단순한 노인의 취업문제 영역을 넘어선 사회 공적 서비스의 총체적인 수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착상하여 조손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의 취업상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조손가계의 경제 상황을 유추해 볼 필요성이 있었

다. 이희숙, 신상미(2003)는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하여 취업노인가계와 비교분석 하였다. 노동패널 4차년도(2000년)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득과 1인당 소득은 취업노인가계의 58.9%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은퇴노인가계의 소득유형 중 이전소득은 연평균 256만 3천원과 37.1%의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인 반면, 취업노인가계는 연평균 47만 1천원과 4.0%의 낮은 구성비율을 나타내어 은퇴노인가계의 상대적인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하였다. 총소비지출 수준에서는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1인당 지출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은퇴노인가계의 식비비중 즉, 앵겔계수는 41.9%로 나타나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김연정(1998)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여실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파악한 은퇴노인가계의 연평균 가계소득액은 1,175만원으로 취업노인가계의 1,578만원 보다 적어 은퇴한 노인가계의 소득력 하락을 제시하였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은퇴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 근로소득의 약 1/2 정도로 나타났다. 양세정, 성영애(2001)의 연구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가계유형별로 노인가계의 경제구조에 관해 분석하였는데 노인가계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비노인가계의 77.1%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가계의 소비지출수준은 비노인가계의 66.2%정도로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비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인가계의 소득원천 중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비롯된 이전소득의 비중이 20.3%에 이르렀고, 근로소득은 4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구와의 소득, 지출 차이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경제복지의 측면에서 가구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조손가계

경제구조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김효정, 2002). 경제복지를 객관적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한 객관적 경제복지와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기준으로 한 주관적 경제복지의 개념으로 나누어 시도한 미국의 가계 유형별 경제복지수준 연구에서 조손가계의 빈곤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조모-손자녀 가계 유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구조적 특징으로 노년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평균적 임금 수취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이 가계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길기 때문에 여러 이유에서 조손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조모-손자녀 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사회구조적 특성과 맞물려 경제복지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공산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조손가계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현상은 급격히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사회문화적, 인종적 특성이 상이한 한국의 상황에 맞는 조손가계의 경제구조에 관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특히 지속되는 경제적 침체기와 사회적 양극화 등의 이유로 서민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노년 인구의 노동시장 접근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기에 조손가계는 빈곤에 가장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서구의 공공 부조 시스템에 비해 부족한 면이 많은 한국의 공공 부조 시스템의 한계를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이런 상황은 특히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조손가계의 경제 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주는 이화영(2006)의 연구는 보다 명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등의 협조를 통해 얻은 조손가계 조부모 217명을 상대로 한 설

문 분석에서 조손가계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손가계의 기초경제상황에 관한 분석에서 조부모들의 85.3%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고 73.6%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구소득은 평균 48만원이며, 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51.2%, 51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경우가 33.6%로 나타났다. 즉 97.9%의 조손가계의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유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조손가족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계에 작용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실질적 생계의 어려움은 가족기능의 수행능력 하락을 불러오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화영, 2006).

이러한 노인 가계와 조손 가계의 경제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보다 면밀한 경제 구조에 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일반적인 노인 가계에 비해 자녀로부터 들어오는 소득의 보조가 없고, 손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출과 보호라는 제약이 있는 조손가계는 보다 불건전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손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소득, 지출에 관한 자세한 분석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손 가계의 다양한 가구 유형을 범주화 하여 각 가계 유형의 경제 구조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면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V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가계, 확대가계와 비교했을 때 조손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어떠한가?

둘째, 핵가계, 확대가계와 비교했을 때 조손가계의 소득·지출·자산·부채 구조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셋째, 핵가계, 확대가계, 조손가계의 재무안전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자료 및 조사대상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이 2004년에 실시한 가계조사의 원자료(raw data)이다. 가계조사는 60여 년간 도시지역의 비농가만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로 실시되다가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읍면 지역의 2인 이상 비농가 까지 확대하여 전국가계조사로 실시되고 있다. 이 자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7대 도시와 각 도의 동부와 읍면부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각 층별로 구해진 표본 수 만큼을 크기에 비례하는 비율로 추출하는 방법인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추출하여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해 조사 수집하고 있으며, 농(림)가, 어가, 단독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외국인 가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표본

가구에서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과 품목명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가계부 기장방식을 사용하였다(통계청, 2004).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가구 구성원 형태에 따라 손자녀와 조부모만으로 이루어진 조손가계,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계, 부모와 미혼자녀 이외에 조부모, 기혼자녀, 미혼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확대가계로 나누고, 가계의 가구주가 누구냐에 따라 조손가계, 핵가계, 확대가계를 조손홀조부가계, 조손홀조모가계, 조손양부모가계로, 핵가계를 편부핵가계, 편모핵가계, 양부모핵가계로, 확대가계를 편부확대가계, 편모확대가계, 양부모확대가계로 나누어 가계구분을 총 9개 집단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의 구성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가구유형별 표본추출의 결과가 <표1>에 나타나있다. 조부모가 가구주이면서 18세 이하의 손자녀를 포함한 가계를 조손가계로 분류하였다. 조손가계의 개념은 조모와 조부가 모두 생존해 있는 양조부모가계와 조부나 조모만 생존해 있는 조손홀조부·조모가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조손가계는 총 670가계로 나타났는데, 이 중 조부만이 생존해 있는 조손홀조부 가계는 7가계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핵가계는 가계 내에 조부모를 포함하지 않고,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즉, 2세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계를 지칭한다. 핵가계 역시 양부모 및 편부·모 가계를 모두 포함한다. 핵가계는 총 52,664가계로 나타났다. 확대가계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계 유형 구분 중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부모, 부모, 자녀가 모두 동거하는 가계를 지칭한다. 확대가계는 총 5,073가계이다.

<표1> 가구유형별 표본크기

	조손가계 (n=670)	핵가계 (n=52664)	확대가계 (n=5073)
부	조손홀조부가계 n=7	편부핵가계 n=933	편부확대가계 n=344
모	조손홀조모가계 n=157	편모핵가계 n=3992	편모확대가계 n=229
양부모	조손양조부모가계 n=506	양부모핵가계 n=47739	양부모확대가계 n=4500

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경제적 변수와 소비지출 변수들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취업인 수, 가구주 교육 수준 및 가구주 직종을 알아보았다.

경제구조와 관련한 변수로는 소득, 자산, 부채, 소비지출을 사용하였다. 소득은 가구주소소득, 가계총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비근로소득, 가계총소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자산은 금융자산에 한하여, 부채는 월평균 부채상환액수에 한하여 측정되었다.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11대 지출비목에 근거하여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가사서비스,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를 측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식료품 비목에서 외식비를 제외하여 ‘외식제외 식비’를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통계청의 2004 가계조사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한 본 연구는 분석 목적에 맞게 SPSS WIN 1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행하였다. 또한 핵가계, 확대가계 조손가계 간의 세대주에 따른 경제구조현황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행하였으며, 가계 형태에 따른 재무안정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고, 보다 정확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 방법인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V. 연구결과 및 분석

1. 가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차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2>에 나타나있다. 조사대상 전체가계의 가구원수는 3.7명이었는데, 이는 핵양부모 가계의 가구원수와 동일한 것으로 핵양부모 가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된 가계유형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조손가계의 가구원수는 평균 적으로 4.0명을 초과하였으며 확대가계의 경우 확대양부모 가계가 가구원수가 5.1명인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큰 규모의 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계의 취업인원수는 평균 1.61명으로 나타났다. 취업인원수 조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조손 가계 중 양조부모가계의 취업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 그것이다. 이는 편조부모나 편부모 가계의 경우, 취업상태일 수 있는 가구원이 가구주 1인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유형별 편부모가계를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핵가계와 확대가계의 양부모 가계보다 조손가계의 양조부모 가계의 취업원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조손가계가 처해있을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과 연관 지어 생각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즉, 가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양조부모가 모두 취업전선에 나가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가계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43.4세로 나타났다. 조손가계의 가구주가 평균 60세를 넘는 것과 비교하여 약 15세 이상이 낮은 결과였고, 핵가계의 편부, 편모 가계의 경우도 가구주의 연령이 49세를 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가구주교육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 가계유형을 통틀어 전반적으로 모든 가계의 가구주가 고졸이하의 교육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직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결과에 나타난 일반적인 경향 중 하나가 홀조모나 편부·모 가계의 가구주보다 양조부모, 양부모 가계의 가구주의 교육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정도가 가계소득의 정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계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조모 가계나 편부모가계의 경우, 가계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저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저하도 역시 우려할만한 면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가구주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가계유형과 비교했을 때, 조손가계의 가구주가 비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조모가계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이 5.1%, 양조부모가계의 경우 8.3%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모두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손가계의 가구주가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거나 안정적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조손가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조손가계 이외의 핵가계와 확대가계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전문직 종사 비율이 모두 고르게 70%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조손가계의 심각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표2> 일반적특성

	조손가계		핵가계			확대가계		
	조모	양조부모	편부	편모	양부모	편부	편모	양부모
가구원수(명)	4.0	5.0	2.5	2.5	3.7	3.8	3.5	5.1
평균/(S-D)	(1.0)	(1.0)	(.6)	(.6)	(.6)	(.7)	(.6)	(.8)
취업인원수(명)	1.6	2.4	1.2	1.4	1.6	1.1	1.3	1.9
평균/(S-D)	(.7)	(1.1)	(.5)	(.6)	(.6)	(.4)	(.5)	(.7)
가구주연령(세)	60.9	61.6	49.2	49.0	42.8	41.7	45.4	42.6
평균/(S-D)	(7.2)	(7.9)	(8.3)	(10.1)	(8.4)	(6.5)	(6.8)	(8.1)
가구주교육정도 N/(%)								
고졸이하	132 (84.1)	383 (75.7)	794 (85.1)	3716 (93.1)	28801 (60.3)	262 (76.2)	199 (86.9)	2714 (60.3)
대졸이상	25 (15.9)	123 (24.3)	139 (14.9)	276 (6.9)	18938 (39.7)	82 (23.8)	30 (13.1)	1786 (39.7)
가구주직종 N/(%)								
전문직	8 (5.1)	42 (8.3)	691 (74.1)	2876 (72.0)	36982 (77.5)	297 (86.3)	198 (86.5)	3415 (75.9)
비전문직	73 (46.5)	338 (66.8)	71 (7.6)	166 (4.2)	8528 (17.9)	26 (7.6)	15 (6.6)	848 (18.8)

2. 조사대상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및 차이검증

1) 가계유형별 소득구조 비교 및 차이검증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의 가계유형별 소득구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 방법인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가구주소소득, 가계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비근로소득, 가계총소득 중 가구주소소득, 가계총근로소득, 가계총소득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비근로소득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별 소득액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해 소득을 원천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가구주가 가지는 의미적 중요성에 따라 가구주소소득, 근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근로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유가증권매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금액은 금융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하였으며, 부동산 임대나 매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하였다. 재산과 이전소득으로 얻어지는 소득은 비근로 소득으로 분류하여 근로소득과의 구분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raw 데이터의 경상소득을 가계에서 이용 가능한 가계총소득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가구주소소득을 크게 조손가계, 핵가계, 확대가계의 형태로 비교했을 때 조손가계가 월 580,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그 뒤를 확대가계가

1,319,000원, 핵가계가 1,423,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손, 확대, 핵가계의 순서로 가구주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계의 가구주가 가장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결과는 굳이 통계적인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추 가능한 사실이지만, 다른 가계형태와의 비교를 통해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확대가계나 핵가계와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정도의 가구주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가구의 주된 소득원으로 볼 수 있는 가구주소득이 턱없이 작은 것은 가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가계형태별 비교에서도 홀조모가계가 월 236,000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모핵가계가 월 595,000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손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나아가서는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즉, 홀조모가계에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으며, 이러한 여성 가구주의 경우에는 핵가계에서도 낮은 가구주소득으로서 가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조부모가계에 이어 편모확대가계가 네 번째로 낮은 가구주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조손가계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핵가계와 확대가계에 비해 더욱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핵가계와 확대가계의 가구주소득 전체 평균만으로 그들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면에 가려진 여성가구주 가계의 복지에 더욱 신경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논의점인 조손가계에 초점을 놓고 보자면, 조손가계의 극

히 적은 가구주소소득의 개선에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특히나 홀조모가계가 사회적인 집중과 관심을 가지도록 조치가 필요함에 대한 강조가 시급할 것으로 여겨진다.

가계총근로소득은 가계 내에서 근로에 의해 얻어지는 소득의 합을 산출한 것으로 가구주,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그 밖의 가구원들의 근로에 의해서 가계로 유입되는 소득이다. 조손가계는 월 1,043,000원, 핵가계는 월 1,723,000원, 확대가계는 1,789,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핵가계와 확대가계는 근소한 차이만을 보였다. 이에 반해 조손가계는 나머지 가계와 비교했을 때 월 70,000원에 이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로 유입되는 근로소득에 있어서도 다른 가계유형에 비해 적지 않은 양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인 가계구분으로 들어가 비교해보면 홀조모가계의 경우는 가구주소소득에서와 같이 8개 집단 중 가장 낮은 가계총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홀조모가계의 경우 조모이외의 다른 가구원이 근로소득을 가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홀조모가계 이외에도 편부모 가계의 경우 양부모가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총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로 가계소득을 충당하는 가계가 많다는 사실과 연관 지어 생각할 때 편부모가계는 가계구성원에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에게서 유입되는 가계근로소득이 아예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낮은 근로소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배우자소득이 없는 편부모가계에 더욱이 가구주가 여성이고, 부모가 편부모라면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소득은 가계로 유입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합산을 의미한다. 가구주소소득이나 가계총근로소득

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가게의 부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소득지표라고 여겨졌지만, 모든 비교대상 집단에서 크게 의미를 둘 수 있을 만큼의 수치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조손가계가 월 500원, 핵가계가 월 7,000원, 확대가계가 월 3,000원의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앞선 소득의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손가계와 핵, 확대가계 간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핵, 확대가계가 가지는 월 몇 천원의 금융소득이 실질적으로 가게의 경제상황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기에 금융소득에서 조손가계가 다른 가게형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모든 가게에서 많지 않은 금융소득을 보유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 임대나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가게로 유입되는 소득의 함으로 구성된 소득이다. 부동산소득의 경우 역시 조손가계가 핵가계, 확대가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계는 월 14,000원의 부동산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확대가계는 조손가계의 2배인 월 28,000원, 핵가계는 제일 많은 월 50,000원의 부동산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소득에서 살펴볼 점은 역시나 홀조모가계의 경우 부동산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홀조모가계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금융소득에서도 0원을 기록하였는데,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에서 전혀 소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다른 가게유형처럼 소득원천을 다양화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때 가게경제구조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는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소득의 경우 확대편모가계도 0원이었는데, 여성이 가구주로 있는 가게에서 역시 부동산소

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뿐더러 부동산의 부재로 인한 다른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핵편부가계가 월 2,000원의 부동산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손양조부모가계가 월 17,000원, 확대양부모가계가 월 26,000원으로 그 뒤를 잇는 금액의 부동산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한 가지 특이점은 핵가계의 편모가계가 다른 여성가구주 가계와는 다르게 월 37,000원의 부동산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한 별다른 추측이 어려우나 다른 여성가구주 가계와는 다른 행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점이 있다. 그 밖에도 확대가계 중 편부가계가 월 1,303,000원의 부동산소득을 가지고 있어, 가계유형 중 가장 많은 부동산소득을 나타낸다는 점도 흥미를 끌었다.

비근로소득은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제시한 값으로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이고,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 공적연금을 비롯하여 기타사회보장수혜 등을 합친 소득이다. 앞서 살펴 본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에서도 재산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비근로소득 부분에서 소득의 원천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금융과 부동산적 소득의 양을 파악하고자 했던데 의의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여기서 살펴볼 비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의 반대 개념으로 가구원의 근로없이 가계에 유입되는 것이다. 전체가계유형의 비근로소득을 살펴보면, 조손가계가 월 141,000원, 핵가계가 월 120,000원, 확대가계가 162,000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모든 소득에서 조손가계가 최하위를 차지하였던 것과 다르게 비근로소득에서는 조손가계가 핵가계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계가 재산소득에서 별다른 소득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보조받는 공적보조금 형태의 이전소득이 조손가계의 비근로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비근로소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핵가계편부가계가 월 32,000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의 비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홀조모가계가 월 80,000원, 확대가계양부모 90,000원, 핵가계양부모가계가 93,000원순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숫자적인 순서의 나열보다 더 중요한 패턴의 발견에 더 의미가 있는데, 모든 조손가계를 제외한 핵가계와 확대가계에서 양부모가계보다 편모가계의 비근로소득이 더 높았다. 확대가계의 경우는 금액에 있어서의 차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부모가계의 경우 월 90,000원이었고, 편모가계의 경우 227,000원이었다. 이에 반해 핵가계의 경우 양부모가계가 월 93,000원, 편모가계가 월 124,000원으로 금액에 있어서의 차이는 많지 않았으나 편모가계가 더 많은 비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조손가계의 경우 양조부모가계는 월 166,000원, 홀조모가계는 월 80,000원의 비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두 가계유형 간 금액의 차이가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계의 경우에 비해 편부모가계에 정부 및 사회의 보조 장치가 더욱 활발히 기능하여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홀조모가계가 양조부모가계보다 더 적은 비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보조장치가 우리의 기대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부분이다. 7개의 가계 유형 중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일 수 있는 홀조모가계가 모든 가계유형의 전체평균에도 못 미치는 비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다른 소득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줄이는

데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지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조손홀모가계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가계에 들어오는 소득의 원천별 분류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가계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어 정기적으로 가계에 유입되는 모든 소득의 합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상소득을 가계총소득이라 규정하고 가계유형별 가계총소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조손가계는 월 1,283,000원, 핵가계는 월 1,868,000원, 확대가계는 2,037,000원의 가계총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가계유형별 가계총소득을 살펴보면, 홀조모가계와 핵편모가계가 월 1,000,000원에 못 미치는 500,000원, 951,000원의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상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홀조모가계의 경우 두 번째로 적은 가계총소득을 가지는 핵편모가계와도 거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의 차이로 최하위 소득가계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 나머지 가계에서도 양부모가계에서보다 편부모가계에서 가계총소득 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핵가계에서는 편모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편부가계 역시 양부모가계와 비교했을 때, 편부가계는 월 1,079,000원, 양부모가계는 월 2,047,000원의 가계총소득을 가지고 있어 두 가계 간 두 배 가까운 소득 격차가 있었다. 확대가계에서는 편부가계가 월 1,408,000원, 편모가계가 월 1,461,000원으로 편부가계와 편모가계간의 가계총소득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양부모가계는 월 2,150,000원의 가계총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편부와 편모가계와 소득격차가 월 700,000원 가까이 벌어지고 있었다. 홀조모가계와 핵편모

가계가 월 1,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계총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핵양부가계와 확대가계양부모 가계가 각각 월 2,047,000원, 2,150,000원의 가계총소득을 가지고 있어 월 2,000,000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가계유형별 소득구조 비교 및 차이 검증

(단위 : 월평균, 천원)

변수	홀조모 n=39	조손 양부모 n=231	핵편부 n=514	핵편모 n=2174	핵 양부모 n=29661	확대 편부 n=220	확대 편모 n=194	확대 양부모 n=2564	전체			F값
									조손 가계	핵 가계	확대 가계	
가구주 소득	236 a	732 b	889 b	595 a	1,603 d	1,303 c	879 a	1,393 d	580	1,423	1,319	371.358 ***
가계 총근로 소득	420 ab	1,339 d	1,019 bc	832 ab	1,924 de	1,315 c	1,228 a	1,951 e	1,043	1,723	1,789	337.283****
금융 소득	0 a	1 a	0.2 a	7 a	8 a	0 a	0.002 a	4 a	0.5	7	3	.708
부동산 소득	0 a	17 a	2 a	37 a	57 a	123 a	0 a	26 a	14	50	28	.281
비근로 소득	80 a	166 a	32 a	124 a	93 a	196 a	227 a	90 a	141	120	162	1.598
가계 총소득	500 ab	1,651 cd	1,079 ab	951 a	2,047 c	1,408 b	1,461 a	2,150 d	1,283	1,868	2,037	311.651 ***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2) 가계유형별 자산 및 부채구조 비교 및 차이검증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의 가계유형별 금융자산 및 부채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 방법인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표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금융자산과 월평균 부채상환액수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저금, 저축성보험료, 유가증권구입, 월말현금잔고를 합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조손가계는 608,000원, 핵가계는 1,139,000원, 확대가계는 1,930,000원의 금융자산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계의 금융자산 현황이 다른 가계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확대가계와 비교했을 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기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세부 가계유형별로 살펴보면, 홀조모가계의 경우 가장 낮은 440,000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홀조모가계 다음으로 낮은 값을 가지는 핵편모가계와도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홀조모가계가 다른 가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취약한 금융자산 규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편모가계 역시 홀조모가계보다는 많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1,000,000원도 안되는 금융자산 규모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으며, 확대가계의 경우 편부가계보다 편모가계가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핵가계와는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양조부모가계와 핵편부가계, 확대편부, 확대편모가계 모두 1,000,000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핵가계양부모와 확대가계양부모가

계는 2,000,000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가계유형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금융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월평균부채상환액수는 가계에서 매월 부담하고 있는 부채상환액을 측
정한 것으로 주택부금상환과 빌린돈을 갚는 금액, 월부 및 외상 갚은
금액 등을 변수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 조손가계의 월평균 부채상환액
수는 53,000원이었고, 핵가계는 243,000원, 확대가계는 256,000원이었다.
핵가계와 확대가계의 월평균 부채상환액수가 거의 비슷한 금액인 반면,
조손가계는 거의 1/4에 가까운 수준의 월평균 부채상환액수를 가지고
있었다. 세부 가계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홀조모가계가 월 40,000원의
부채상환액을 가져 가장 적은 액수를 상환하고 있었으며, 그 밖의 다른
가계에서는 모두 월 1,000,000원 이상씩을 갚아 나가고 있었다. 핵편부
가계와 핵편모가계, 확대편모가계가 월 200,000원 미만의 부채를 상환하
고 있었다. 그 밖에 조손양부모가계와 핵양부모가계, 확대편부가계, 확
대양부모가계가 월 200,000원 이상의 부채를 상환 중이었으며, 이 중 핵
양부모가계가 가장 많은 금액인 월 431,000원을 상환하고 있었다.

금융자산규모와 월평균 부채상환액수를 동시에 살펴보면, 홀조모가계
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금융자산규모를 보유하면서 역시 가장 적은
금액의 월평균 부채상환액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러한
패턴으로 가계들이 금융자산과 부채상환액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외
적으로 확대편부가계는 금융자산의 규모는 작으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월부채상환액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확대편모가계의 경우
금융자산의 규모는 크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월평균 부채상환액을 가지
고 있었다.

조손가계의 금융자산 규모와 월평균 부채상환액은 금융자산의 경우
홀조모가계가 워낙 금액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금융자

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금융소득이 전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산 규모는 신용에서 비롯될 수 있는 대출 등에서 불리하여 다른 가계와 비교했을 때 부채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홀조모가계는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리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에 반해 양조부모가계의 금융자산 현황과 월부채상환액은 다른 가계들과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 가계유형별 자산 및 부채상환액수 규모 차이검증

(단위 : 월평균, 천원)

변수	홀조모	조손양부모	핵편부	핵편모	핵양부모	확대편부	확대편모	확대양부모	전체			F값
	n=39	n=231	n=514	n=2174	n=2966 1	n=220	n=194	n=2564	조손가계	핵가계	확대가계	
금융자산	440 a	1,108 b	1,009 a	896 a	2,134 bc	1,301 a	1,448 a	2,195 c	608	1,139	1,930	136.983 ***
월평균부채상환액수	40 a	246 ab	168 ab	153 ab	431 b	415 b	132 a	388 b	53	243	256	19.452 ***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3) 가계유형별 지출구조 비교 및 차이검증

가계유형에 따른 지출구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 방법인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주거 비목을 제외한 모든 비목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조손가계, 핵가계, 확대가계의 total 총소비부터 살펴보면, 조손가계가 월 2,300,000만원, 핵가계가 월 2,370,000원, 확대가계가 월 2,649,000원의 총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계와 핵가계 간의 총소비 차이가 불과 70,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적 결과가 눈에 띄고, 조손가계, 핵가계와 확대가계 간의 총소비 차이가 300,000 정도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가계의 가구구성원이 다른 가계와 비교했을 때 많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총소비를 세부 가계유형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조손가계 내에서는 홀조모가계와 양조부모가계 간 총소비 차이 격차가 약 350,000원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홀조모가계의 취약한 소득구조와 연결지어 보았을 때 그렇게 낮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른 가계유형간의 비교가 아니고, 조손가계 내에서조차 가계 간 총소비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홀조모가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핵가계 내에서 살펴보면, 편부가계와 편모가계 간의 총소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부가계는 월 2,213,000원, 편모가계는 월 2,243,000원의 총소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핵편부모가계와 핵양부모

가계의 총소비를 비교했을 때 양부모가계의 총소비가 약 250,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구성원의 수가 양부모가계가 더 많기 때문에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르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증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소비에 따르는 가계의 만족도에서 편부모가계가 양부모가계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다는 염려부분에서 더욱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확대가계의 총소비에서는 세부가계 유형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고 있었다. 확대편부가계는 월 2,030,000원, 확대편모가계는 1,572,000원, 확대양부모가계는 2,801,000의 총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양부모가계가 월 평균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핵양부모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확대가계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확대편부모가계의 총소비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확대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조손가계와 핵가계를 통틀어서도 가장 낮은 총소비를 하고 있고, 그 액수에서도 월등이 낮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적 복지가 상당히 낮을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 세부 가계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조손가계가 총소비 측면에서 다른 가계유형에 비해 소비의 측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복지감에 괴리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핵가계나 확대가계 내의 편부모가계와의 비슷한 총소비 규모가 조손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핵가계와 확대가계의 총소비 수준과 비교하여 조손가계의 총소비가 많은 금액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손가계의 경제적인 만족도가 다른 가계유형에 비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넘어가는 바

이다.

지출비목별로 각 가게유형별 지출구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각 가게별로 가구원의 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다. 식료품은 외식비용을 포함한 식대에 관한 모든 지출을 포함하는 항목이다. 가게별 전체평균으로 살펴보았을 때 핵가게가 식료품에 가장 낮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 그 다음이 조손가게였으며, 확대가게가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지출의 순서는 가게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 특징, 즉 가게구성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다. 식료품에서는 조손가게의 홀조모가게와 핵가게의 편부모가게의 지출금액 비교가 의미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확대가게는 부양자 이외의 가게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가게구성원당 어느정도의 식료품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홀조모가게와 핵편부모가게는 미혼자녀나 미혼손자녀를 부양하는 1인의 보호자만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홀조모가게의 경우 528,000원 핵편부가게는 413,000원, 핵편모가게는 373,000원을 매 월 식료품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홀조모가게가 핵편부모가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식료품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조손양부모가게와 핵양부모가게를 비교했을 때도 조손양부모가게는 월 621,000원, 핵양부모가게는 556,000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손가게가 식료품에 대체적으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료품이라는 항목은 앞서서도 말했듯이 외식비용을 포함하는 비목인데, 현대사회에서 외부에서 사먹는 외식비용에 대한 비중이 점차 커져감으로써 실제적으로 가게 내에서 사용되는 식비에 대한 의미로서의 식

료품이라는 비목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료품의 항목 내에서 외식에 쓰이는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게 내에서 식비에 사용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측정을 하였다. 그것이 '외식제외식비'라는 항목이며 이를 통해 각 가게가 외식을 제외한 식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조손가계에서는 외식을 제외한 식비를 월평균 515,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를 식료품비에서 제외시키면 월 106,000원을 외식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월평균 외식비를 산출하면, 핵가계는 163,000원, 확대가계는 155,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핵가계와 확대가계와 비교했을 때 조손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외식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식료품 전체에 지출하는 금액에서 조손가계가 다른 가게유형에 비해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손가계가 외식비용을 다른 가게에 비해 훨씬 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조손가계 내에서 외식이라는 형태의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았다. 홀조모가계에서는 월 64,000원의 외식비용을 하고 있었고, 양조부모가계는 월 99,000원의 외식비용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모든 가게유형을 통틀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지출로, 가장 많은 외식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핵양부모가계와 비교했을 때 100,000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실 외식이라는 비목의 지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생인 미혼 손·자녀들의 학교 급식비용같은 지출도 외식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식'에서의 개념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외식에서의 여러 사용처 구분을 통해 가게유형별 식료품 지출 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식생활 패턴을 파악하

여 가계별 복지감 향상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주거 비목은 주택 및 토지에 관련된 소비지출로 월세나 주택설비나 구리에 들어가는 일체 비용에 대한 부분이다.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확대가계가 월 105,000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었고, 그 뒤를 핵가계가 95,000원, 마지막으로 조손가계가 87,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주거 비목의 경우 주거와 관련되는 유지, 보수 비용과 더불어 자가가 없는 가계에서는 월세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주거관련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고 해서 꼭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거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확대가계의 경우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손가계의 경우 가장 적은 금액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부모세대가 일찍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여 주거관련 비용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추측을 해보지만, 같은 이치로 확대가계를 조명해 보았을 때 같은 조부모세대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많은 주거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이유로 조손가계가 주거 비목에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취약한 경제구조 속에서 주거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광열수도 비목은 난방 및 취사용 연료와 전기료, 수도료를 포함하는 비목이다. 광열수도 비용에서는 핵가계가 가장 적은 비용인 월 108,000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조손가계 126,000원, 마지막으로 확대가계가 가장 많은 월 136,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가계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확대가계에서 많은 광열수도 비용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다른 가계와 비교했을 때

광열수도 비목에서 보이는 조손가계의 큰 특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집기가사용품 비목은 가구구입 및 수리비용, 가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및 서비스비용에 드는 일체 비용에 대한 부분이다. 가구집기가 사용품 비목에서는 조손가계가 월 93,000원, 핵가계가 월 90,000원, 확대가계가 월 87,000원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계 내에서는 홀조모가계와 양조부모가계 간의 격차가 약 20,000원 정도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핵가계 내에서는 편부모와 양부모 간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부가계는 월 34,000원, 편모가계는 월 45,000원인 반면, 양부모가계의 경우에는 월 96,000원의 지출을 하고 있어, 편부모가계와 거의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확대가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확대편부가계는 월 52,000원, 확대편모가계는 월 30,000원의 지출을 하고 있는 반면, 확대양부모가계는 월 94,000원의 지출을 하고 있었다. 이는 모든 가계를 통틀어 편부모가계보다 양부모가계에서 가구집기가사용품에 대한 지출이 많은 일관된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액적 격차에 있어서 조손가계가 다른 형태의 가계들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조손가계가 가구집기가구용품적인 지출면에서 다른 가계형태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사실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사서비스 비용은 가사에 관련된 서비스에 드는 비용으로 가사사용인을 고용하였을 때 드는 비용과, 보육료, 청소료 등을 포함한다. 조손가계는 월 평균 59,000원, 핵가계는 45,000원, 확대가계는 44,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계와 확대가계 간 가사서비스 비용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손가계가 월 15,000원 정도 많은 금액을 가사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

가계 유형별 지출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조손가계에서 홀조모가계와 양조부모가계가 월 60,000원 정도의 가사서비스 비용을 지출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 조손가계와 비교하여 핵가계의 편부모가계가 적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월 19,000원씩을 지출하고 있었다. 핵양부모가계의 경우에도 조손가계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조손가계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보통 핵가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로도 볼 수 있다. 핵가계와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조손가계가 지출구조 상에 있어서 가사서비스에 많은 금액을 할애했다는 것에는 그만큼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손가계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조손가계를 위한 사회제반 서비스 구축과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피복 및 신발 비목은 의복 및 신발과 이에 관련된 부품 및 서비스 구입비를 의미한다. 확대가계가 월 137,000원, 조손가계가 월 130,000원 핵가계가 월 129,000원의 피복 및 신발 지출을 하고 있었다. 조손가계 내에서는 홀조모가계가 월 142,000원, 양조부모가계가 월 125,000원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피복 및 신발 지출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계에서는 편부가계 79,000원, 편모가계 99,000원으로 양부모 133,000원의 피복 및 신발 지출로써 편부가계의 지출이 확연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모가계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생계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기에 피복이나 신발과 같은 부가적인 생필품 소비까지 신경 쓰기 힘든 상황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생업에 집중이 덜 한 양부모의 피복 및 신발 소비 수준이 평균이상임을 나타내는 수치와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

었다. 이런 상황은 확대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확대편부가계는 64,000원, 확대편모가계는 82,000원으로 양부모확대가계의 143,000원의 수치와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편부모 가계의 피복 및 소비 지원에 관한 연구와 동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의료 비목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약품, 기타보건의료용품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확대가계가 월 161,000원, 조손가계가 월 127,000원, 핵가계가 월 124,000원의 보건의료 지출을 하고 있었다. 조손가계 내에서는 홀조모가계가 월 103,000원, 양조부모가계가 월 135,000원의 지출로 고르게 100,000원 이상의 보건의료비 지출하고 있었고, 핵가계에서는 핵편부가계와 핵편모가계 모두 100,000원 미만의 지출을 하고 있었다. 확대가계에서는 확대편부가계에서 다른 가계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출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월 453,000원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대편부가계에서 이러한 지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원인을 규명하면 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교육 비목은 교육 및 이에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구입비 일체를 포함한다. 조손가계는 월평균 교육비로 220,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핵가계와 확대가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로 핵가계는 월평균 404,000원, 확대가계는 월평균 43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가계유형별로 살펴보면, 홀조모가계와 양조부모가계, 핵편부가계, 핵편모가계는 월평균 200,000원대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확대편부가계와 확대편모가계는 월평균 100,000원 후반대

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가계와 확대가계에서는 편부모가계와 양부모가계 간의 교육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불평등의 대물림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공교육이 불신 받고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비의 편차는 교육 부문의 기회의 불평등을 유발 시킬 개연성이 크다. 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좌절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다. 특히 교육 부문의 경쟁이 상대적 우위에 근간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비 지출의 확연한 차이는 노력과 의지로 극복하기 힘든 실질적 불평등을 유발하여 개개인의 자활의지와 목표를 상실케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계의 자녀들 역시 미래의 인재로써 공평하게 경쟁하여 안정된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직접적이고 실효 있는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교육 시스템이 아직은 사교육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비의 편차는 사회적 정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사회적 계층화의 심화를 불러 올 수 있는 문제이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직접적인 교육 지원 정책과 간접적인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병행이 필요해 보인다.

교양오락 비목은 교양, 오락, 취미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조손 가계의 교양오락 비용 지출은 79,000원으로 조손 가계, 양조부모 가계 모두 평균을 상회하고 있었다. 핵가계의 평균 지출액은 101,000원 이었고 그 중 양부모 가계의 지출액은 108,000원으로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핵편부가계 76,000원, 핵편모가계 60,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확대가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데 평균 99,000원의 지출에 비교하여 확대편부가계 79,000원, 확대편모가계 67,000원으로 양부모 103,000원에 못 미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가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양오락비용의 편부모가계의 지출 저하 경향은 가계 구

조에 따라 삶의 질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비용의 여가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엔겔지수로 표현되는 소득불균형의 차이를 불러오는 것으로 여가비용의 이런 확연한 차이를 통해 편부모 가계와 양부모 가계, 조손 가계와 정상적인 가계의 소득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교통통신 비목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정보의 전달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비용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비목으로 특히 정보화 시대에 들어섬에 정보의 접근성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소비의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조손가계의 평균적인 지출은 546,000원인데 홀조모가계 650,000원 양조부모가계 517,000원으로 홀조모가계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양조부모가계는 적은 지출의 양상을 보여 이색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엄청난 표준편차로 가계 집단 내 지출의 양상이 극단에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색적이었다. 핵가계의 평균 지출은 441,000원으로 핵편부가가계가 360,000원으로 많이 부족한 경향을 보였고, 핵편모가계는 429,000원, 양부모가계는 445,000원으로 평균값에 근접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가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는데 평균 지출은 473,000원으로 나타났고 확대편부가계는 352,000원, 확대편모가계는 392,000원으로 확대양부모가계 487,000원에 확실히 부족한 지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의 확대와 통신 시설의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지출의 불평등의 정도가 덜 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중요함을 전제로 할 때 이러한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

어야 할 것이며 차이가 무의미해 질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5> 가계유형별 지출구조 비교 및 차이검증

(단위 : 월평균, 천원)

변수	홀조모 n=39	조손 양부모 n=231	핵편부 n=514	핵편모 n=2174	핵양부모 n=29661	확대 편부 n=220	확대 편모 n=194	확대 양부모 n=2564	전체			F값
									조손 가계	핵 가계	확대 가계	
식료품	528 d	648 f	413 ab	373 a	587 e	475 cd	425 bc	686 f	621	556	646	280.931 ***
외식제외 식비	464 c	549 e	294 a	268 a	407 c	313 b	339 b	516 d	515	393	491	291.471 ***
주거	65 a	103 b	90 ab	117 ab	92 ab	96 ab	137 ab	102 ab	87	95	105	1.412
광열수도	128 ab	125 d	68 a	83 ab	110 c	95 bc	61 bc	141 d	126	108	136	129.091 ***
가구집기	78 a	102 b	34 a	45 a	96 ab	52 a	30 a	94 ab	93	90	87	8.286 ***
가사 서비스	63 d	60 c	19 a	19 ab	47 c	62 c	9 a	44 bc	59	45	44	47.158 ***
피복 및 신발	142 b	125 b	79 a	99 a	133 b	64 a	82 a	143 b	130	129	137	45.568 ***
보건의료	103 a	135 abc	97 ab	98 ab	128 abc	453 abc	151 bc	163 c	127	124	161	14.974 ***
교육	222 a	224 a	287 a	243 a	415 b	179 a	163 a	450 b	220	404	433	124.437 ***
교양오락	82 d	83 ab	76 ab	60 a	108 ab	79 ab	67 a	103 ab	79	101	99	16.529 ***
교통통신	650 a	517 d	360 abcd	429 abc	445 bcd	352 abc	392 ab	487 cd	546	441	473	11.477 ***
기타소비	287 a	367 b	198 a	218 a	372 b	224 a	217 a	433 b	342	348	396	68.056 ***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4) 가계유형별 재정적 안정도 비교 및 차이검증

가계 유형에 따른 재정적 안정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순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소득 중 부채상화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소득은 가계의 경상소득에서 월평균소비지출액을 감한 값으로 가계가 소비를 위해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순소득이 가장 높은 가계는 조손양부모가계로 월 1,282,008원이라는 꽤 높은 순소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은 확대양부모가계로 월 1,202,289원, 그 다음은 핵양부모가계로 월 1,046,081원의 순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가계는 평균적으로 월 1,000,000원이 넘는 순소득을 가짐으로써 가계의 소득을 위험대비나 노후대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확보에 있어서 다른 가계유형보다 나은 재정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홀조모가계, 핵편모가계, 확대편부모가계의 경우, 420,899원과 226,998원의 순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500,000원의 순소득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현재 시점을 벗어난 미래적 개념의 부의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또 다른가계유형 중 핵편부가계와 확대편부가계도 월 500,000원을 갓 넘거나 조금 넘는 금액의 순소득을 가지고 있었기에 양부모가계에 비해 불투명한 미래를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편부모가계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점 중 한 부분일 수 있는 결과라는 생각으로 편부모가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목이며, 아울러 앞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내용이지만, 홀조모가계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편부모가계에 대한 관심 그 이상의 사회적 손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소득 중 부채상환비중은 월평균부채상환액을 경상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경상소득 중에서 부채상환액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 책정되었으나,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 부채상환 비중이 가장 낮은 가계유형은 확대편모가계였으며, 그 다음이 홀조모가계로 경상소득 중 10%도 부채상환 용도로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손 양부모가계와 핵편부가계, 확대양부모가계가 약 20% 미만의 비중으로 부채상환 중이었으며, 나머지 핵편모가계, 핵양부모가계, 확대편부가계가 20%이상의 비중으로 부채상환 용도로 경상소득을 지출하고 있었다.

<표 6> 가계유형별 재정적 안정도 차이 검증

변수	홀조모 n=39	조손 양부모 n=231	핵편부 n=514	핵편모 n=2174	핵양부모 n=29661	확대 편부 n=220	확대 편모 n=194	확대 양부모 n=2564	F 값
순소득	420,899 a	1,282,008 c	537,489 ab	362,064 ab	1,046,081 c	666,240 b	226,998 a	1,202,289 c	55.086 ***
소득중 부채상환 비중	.0751 a	.1165 a	.1796 a	.2275 a	.2337 a	.2842 a	.0677a	.1857 a	2.287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VI.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가계의 유형 변화는 현대 사회의 한 단면과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본 연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는 기존 가족구조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오면서 조부모와 손자녀 만으로 구성된 ‘조손가계(Grandparent-headed Households)’라는 새로운 가계유형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에도 가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자세한 현황조차도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에서부터 시작된 연구였다. 조손가계에 대한 가계경제구조분석조손가계에 대한 조부모가 형성한 경제구조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손자녀들이 속해 있는 조손가계에 대한 경제구조분석을 통해 이들 가계가 처해 있는 경제적 현실을 알아보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였다.

본 연구는 조손가계, 핵가계, 확대가계를 가구주와 가구원들의 구성상태에 따라 총 8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유효 대상 수가 적은 홀부조손가계를 제외한 홀모조손가계, 양부모조손가계, 편부핵가계, 편모핵가계, 양부모핵가계, 편부확대가계, 편모확대가계, 양부모확대가계의 가계경제구조를 분석하였다. 조손가계의 경제구조를 핵가계와 확대가계와의 비교를 통해 소득, 지출, 자산, 부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패턴이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04년 가계조사 데이터(2004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aw data)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데이터를 SPSS Window(Version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으며, 가계유형별 경제구조와 재무안정성 차이검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고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유형별 소득구조분석에 있어서 비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주 소득, 가계총근로소득, 가계총소득에서 조손가계가 핵가계와 확대가계에 비해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핵가계, 확대가계와 비교했을 때 조손가계가 약 절반정도의 가구주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가구의 주된 소득원으로 볼 수 있는 가구주소득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심각성을 추측할 수 있게끔 하였다. 특히 홀모조손가계는 가계총근로소득에 있어서 7개 가계유형 중 가장 적은 가계총근로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취약한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홀모조손가계는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에서의 소득은 0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역시나 조손가계의 소득 부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둘째, 가계유형별 금융자산과 부채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에서는 조손가계가 핵가계와 확대가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확대가계와 비교했을 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었다. 자산부분에 있어서도 홀모조손가계가 가장 낮은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손가계 중 홀모조손가계의 경제적 복지 수준이 다른 가계유형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가계별 월평균부채상환액수에서는 조손가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부채상환액을 가지는 핵가계와 확대가계와 비교했을 때 1/4 수준의 부채상환액을 가지고 있었다. 금융자산규모와 월평균 부채상환액수를 동시에 살펴보면, 홀모조손가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

유하면서 역시 가장 적은 금액의 월평균 부채상환액수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가계유형별 소비지출구조 분석에 있어서, 총소비에서 조손가계가 핵가계, 확대가계와 비교했을 때 금액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계가 총소비 측면에서 다른 가계유형에 비해 소비의 측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복지감에서 괴리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핵가계나 확대가계 내의 편부모가계와 비슷한 총소비 규모가 조손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지출비목에 따른 비교를 살펴보면, 조손가계가 식료품, 광열수도,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비목에서는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으나, 가구집기사용품이나 가사서비스, 특히 교통통신 비목에서는 다른 가계유형보다 많은 지출액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교육이나 교양오락 비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순소득과 소득 중 부채상환 비중을 통해서 알아본 가계유형별 재정적 안정도 차이검증에서는 순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소득 중 부채상환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홀모조손가계의 경우 순소득이 월 500,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경제구조 상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조손가계의 가계경제구조가 대단히 불건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은퇴나 해고 등의 이유로 노인계층의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소득원이 부족한 조손가계는 빈곤한 생활을 탈피하기 힘들 수밖에 없었다. 각종 분석에서 드러난 가계소득과 지출에 있어서 조손가계는 현저한 열세를 보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조손가계의 소득 상당부분이 사회 공공부조에 의한 이전소득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 공공 제정의 압박으로 다가올 여지가 컸다. 특히 홀모조손가계의 경우는 어려움에 처해진 경제적 상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평균수명이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 더 길다는 점에서 홀조모손가계의 형성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을 때 홀조모손가계의 가계경제구조상의 취약성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홀조모손가계의 근로소득 및 각종 소득은 다른 가계 유형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조모가 사회적으로 취업과 임금수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홀조모손가계가 조손가계의 구성에서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 여성과 노년이라는 두 가지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홀조모손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손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중 또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소비 지출의 구성이다. 조손가계의 소비·지출 구조 분석을 통해 식료품비의 지출 비가 유난히 높으며, 상대적으로 교육, 여가에 나가는 비용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손가계의 앵겔계수가 다른 가계 유형에 비해 높은, 즉 다시 말해 전형적인 저소득층의 지출 행태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이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여타의 부차적인 여러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교육비 지출의 현격한 차이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되었다. 공교육 시스템이 불신 받고, 입시 위주의 학벌 시스템이 상존해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규모가 학생들 사이의 상대적 우위를 제공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눈에 띈다.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계층화가 고착되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평등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조손가계의 이러한 교육비 지출 열세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다른 조손가계 소비지출구성의 특이점은 가사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는 건강상 신체능력의 열세가 확연한 노인계층이 조손가계의 주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서비스비용 지출이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공적 지원이나 사회단체들의 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볼 때 조손가계는 적은 소득과 그로인한 지출 규모의 한계로 열악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 시키며 조손가계의 가족기능의 약화를 초래하는 등 여러 제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손가계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공 부조의 증가나 사회단체의 활동 지원과 같은 지원책만으로 조손가계의 경제구조 불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 계층의 재취업 문제나, 여성 고용 차별, 비정규직 저임금문제와 같은 조손가계의 일차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문제 해결에서부터 사교육비 문제 해결과 사회 안전망의 새로운 확충 등과 같은

복지 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조손가계의 경제구조에 관한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혜, 김혜선(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3(1), 153-170.
-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이윤금(1999).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 및 관련요인 분석 :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 노인 가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73-86.
- 양세정, 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8.
- 박창기(2002).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가옥, 서미경, 고경환, 박종돈(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화영(2006).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32, 327-355.
- 김미혜, 김혜선(2004). 조손가족 손자녀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부모 관련 요인연구,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 류재중, 조아미(2007). 조손가족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모형 적합도 검증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49-69.
- 최해경(2006). 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적응유연성.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23, 37-58.

- 박옥임, 김정숙(2006). 조속가족과 3세대가족 손자녀의 가족생활적응 및 자존감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1(3), 129-139.
- 옥경희(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03-114.
- 김효정(2004). 가구유형이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미국의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대한거정학회지, 42(12), 15-29.
- 최해경(2006).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실태와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9(2), 115-142.
-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도시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희숙, 신상미(2003).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03-115.
- 서지수(2008). 노인가계 유형에 따른 경제구조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The Economic Structure in the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Park, Guee young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Rapid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has brought a breakdown and dissolution of the preexisting family structure and a new household called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which consists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conomical reality of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where they have to live in an economic structure formed with grandparents and to provide alternative plans for them.

In this study, incomes, expenses, properties and debts of the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a nuclear household and an extended household. The 2004 household income survey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as used for analysis data, and it was analyzed by classifying households based

on a householder and its members into 7 groups(single grandmother-headed, foster parent-headed, single father-headed nuclear household, single mother-headed nuclear household, foster parent-headed nuclear household, single father-headed extended household, single mother-headed extended household, foster parent-headed extended household) excluding single grandfather-headed household.

First,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had very short incomes compared to the nuclear and extended households in the income structure analysis for each household kinds, which include followings except the unearned income: the householder income, the earned income of household, and the net income of household. Especially the single grandmother-headed household showed the most fragile income structure among the others.

Second, in the analysis about financial assets and debt structure for each household kinds, the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possessed very low level of financial assets compared to the nuclear and extended households. For average monthly debt redemption amount, the nuclear and extended households had almost same level of monthly debt redemption amount, but in comparison, the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only had 1/4 much of debt redemption amount.

Third, in the expenditure structure analysis, the total expenditure of the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do not have a big difference compared with the other households. Looking closely into comparison

of the expenditure items, there was no particular traits in categories of groceries, light and heat service, water service, apparels and health service, however, there was more expenditures than other household kinds in the categories of furniture and application, housework service, and especially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y relatively had small amount of expenditures in categories of education, culture and entertainment.

Forth, in the verification of differences for financial stability through the debt redemption rate, a net income statisticall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the debt redemption rat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